대구지방기상청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
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. 6. 18.(목) 13:40

대구·경북 기후위기 적응대책 담당자 한자리에... 소통과 협력 강화 방안 모색

- 대구지방기상청, 대구·경북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

□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김회철)은 6월 18일(목) 대구지방기상청에서 대구·경북 지역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「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소통 워크숍」을 개최한다.

□ 이번 워크숍은 대구·경북 지역 기후위기 적응 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 기관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, 대구지방기상청,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등 16개 기관에서 참석한다.

○ 전문가 강연 '기후위기 적응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(경희대학교 유가영 교수)'를 통해 최신 기후 적응 정책 방향과 지역 맞춤형 적응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,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.

○ 또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,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□ 대구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정보 제공과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.

□ 김회철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"라며 "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기후위기 적응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[붙임] 관련사진 1부.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 직무대리	박금옥 (053-282-0161)
		담당자	주무관	강하영 (053-282-016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2026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소통 워크숍(사진)

※ 사진: 행사 시작 전 참석자 기념촬영